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와 심판을 피하라

성경말씀: 계18:1-8

원래 빌립보서 강해, 새해가 시작되어 구원과 복음, 지옥 불 형벌 등 성경의 주요 핵심 설교, 오늘도 1월 21일부터 12일 동안 56명의 성도들이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여행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와서 오늘은 계18장 말씀을 강해하려고 한다.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니스, 밀라노, 피사(5도시)

가는 곳마다 로마 카톨릭 문화, 로마 교황청을 비롯해서 모두가 천주교회의 유물들(*)

(*) 유럽 도시들(천주교 국가)의 특징, 시내의 가장 한 복판에 성당, 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 숭배 우리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 처형장에 갔다. 내게는 가장 중요한 곳, 그런데 그곳 역시 천주교회의 전승에 따른 카톨릭 성당, 참수당할 때 잘려진 머리가 땅에 세 번 튀었고, 사도의 머리가 된 자리마다 샘물이 났는데, 이를 트레 폰타네(Tre Fontane)라 불렀고 아직도 그 자리엔 샘이 솟아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바울 참수 터 안에 바울의 목이 떨어져 샘이 솟았다는 곳에서 떴다는 물을 담은 병이다. 헌금을 하면 이 성수와 양초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이드가 헌금을 해야 한다고 해서 했다. 나중에 성수 병을 말씀하시며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말했는데 선뜻 대답들을 못하신다. 앞에 앉아있던 내가 얼른 “저 주세요!” 라고 용감히 말하고 내가 받아왔다. ㅎㅎㅎ 얼른 대답하지 않은 몇 분이 아쉬워했을 것....(개신교인의 글)

사도 바울이 가장 증오했던 것, 다른 복음, 믿음 + 행위, 필연적으로 종교적 미신 행위

(*) 스칼라 상타(성 계단), 빌라도의 계단, 거룩한 계단(성 계단)은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수난 당할 때 예루살렘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면서 밟았던 총독 관저의 계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 직접 눈으로 확인함, 28번째 계단,

(*) 심지어 해골로 된 성당(산타 마리아 엘라 콘체찌오네), bone church rome 그리고 이스라엘 방문, 첫 도시 베들레헴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곳마다 천주교 유적지 말 그대로 예수님을 팔아 장사하는 곳들로 전략함

성지 순례 유적지의 거의 100% 천주교회가 장악함

마지막 날 예루살렘 방문, 통곡의 벽(*), 정통파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들(*)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에 정통파 유대인들, 식사도 안 하고 계속 몸을 흔들며 대며 무슨 책을 읽으면서 의식 수행

결론 1: 우리가 만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었다.

이탈리아: 인구의 90% 이상이 카톨릭, 개신교 2-3%

이스라엘: 인구의 90% 이상이 무신론자, 정통파 종교 유대인 7%, 소수의 개신교

결론 2: 현지 가이드의 말: 이스라엘 소개하면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큰 충격, 즉 국가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회복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는 말, 잘못 이해하면 믿음을 강화하려 성지 순례 갔다가 오히려 믿음을 다 잃고 올 판국

총 결론: 이야기의 핵심: 정신 줄 놓고 살다가는 세상 문화에 빠져 믿음 약화

그러면 왜 이런 여행이 필요한가?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3000년간 인간이 만든 문화의 최고봉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아베 마리아 문명임을 본다. 유럽과 남미, 필리핀 등

우상 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계계를 본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라는 존재의 우수성을 본다. 그런 인간이 종교로 인해 타락한 것을 본다.

인간 문명의 극치인 로마, 전 세계에서 가장 소매치기가 많은 곳, 우리도 직접 경험하였다. 눈 뜬 채 코가 베이는 세상, 바울의 로마서 1:18-20, 3:10-18 확인

이스라엘: 역시 아름다운 자연,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곳(아브라함), 카톨릭 교회의 유물과 상관없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과 도시들의 지형(베들레헴 릿과 보아스, 다윗, 여리고 삭개오, 라합, 여호수아), 광야(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유대 광야), 갈릴리 바다(예수님과 베드로), 요르단 강(예수님과 침례자 요한), 예루살렘의 구조, “왜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답도 얻는다.

내 처는 이런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번 여행을 통해 성경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갈릴리 바다(둘레가 50-60킬로미터), 요르단 강, 정통파 유대인들(바리새인들의 모습),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특별히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여행가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참으로 유익한 여행이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하며 지낸 시간들, 목사로서 섬김의 시간 수고해 주신 이상기 형제님 부부, 홍성인, 권효재 형제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모티브를 잡았다. 우리가 보고 만난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 등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탈리아 사람, 아랍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성지 순례를 하는 한국사람, 모두에게는 세상이 다였다. 끝이었다. 전도서 3장 11절

성경은 이런 세상을 '바빌론 문화권'이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 바빌론에 머리를 파묻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 끝이 지옥이다(계18:8).

오늘은 계18:4 말씀,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의 경고,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와 심판을 피하라>

바벨과 바빌론

하나님의 세상 창조, 인간의 타락, 죄가 들어옴, 마귀의 사주로 인간이 극도로 타락함, 창6장, 노아 시대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중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인들과 결합,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 출생, 창6:5, 11-12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전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물로 심판해서 멸절함,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새롭게 인간 역사 시작(창10-11), 마귀의 도발, 함의 아들 중 하나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 등장,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들을 규합하여 최초의 단일 세계 정부 구축 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 혼잡, 세상으로 퍼져 나가게 함, 이때에 마귀 편에 속한 자들이 세상으로 가져간 것이 바로 바빌론 문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종교 의식 문화

바벨 탑(*)

세계 4대 문명(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은 바빌론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특징: 창조물 중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함, 화려한 종교 의식, 제사장 체계(성직자 체계) 이방인 문명: 신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치면서 로마 카톨릭 문명, 어미와 아기 숭배(마리아와 아기 예수), 제사장 계급(교황)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을 택함, 아브라함을 부르심,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 가장 강조한 것(출20:1-6),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러나 이집트 생활을 거치면서 가나안 정착, 도저히 이교도 문화를 견딜 수 없음

결국 금송아지 등의 형상을 섬기며 제사장의 계급화, 성전 문화(하나님 대신 본인들의 행위로 만든 집 숭배),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배척하고 십자가 처형,

주님의 교훈(마10:28; 요4:22-24)

결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바빌론 문화에 굴복함

바빌론 문화 속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경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알림, 그를 세운 목적(행26:17-18), 18절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내 노력을 통해 의롭게 되려 한다. 의식을 통해, 모든 의식이 화려하다. 그것을 집행하는 중간자(제사장)

이것을 깨달으면 된다. 종잇장 하나 차이, 의식을 통해 의를 얻는가? 아니면 의를 얻어서 기쁘게 섬기는가? 엡2:8-10

노아의 홍수 이후 지난 45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룩한 체제; 바빌론 음녀 종교 체제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 종교 의식, 성전, 성당, 제사장 등

결국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한다. 사람의 교만과 종교심을 이용한다.

그것이 종교 일치 운동, WCC, 여기에 가장 앞장 서는 데가 로마 카톨릭 교황

계17, 18장

성경은 대칭 구조, 창세기의 부패가 계시록에 와서 완전한 심판, 회복

계시록은 창세기와 대조,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 등장, 바빌론 문화의 절정, “하나님은 없다. 사람이

유도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결국 종교를 통합함, 계17장은 이 체제를

바빌론 음녀라고 함(17:3-5), 음녀의 특징: 바빌론 문화를 배격하는 자들을 가차 없이 죽임(6)

짐승 위의 음녀(*) 데이브 힌트 (*)

천주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이름으로(요16:1-3)

종교를 이용하여 세상 정복 후 적그리스도 세력이 음녀를 죽임(16), 마귀의 철권통치

18장은 구체적으로 바빌론 음녀의 몰락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천사의 몰락 선포(18:2)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12:9; 18:3),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

바빌론 문화에 속한 자들의 죄(5), 하나님 거부, 동성애, 가정 파괴, 사회주의/공산주의/진화론 등 하나님

경멸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같다.

바빌론 문화에 편승한 자들 호화롭게 산다(7). 교황을 보라, 천주교 성당을 보라. 제사장들을 보라.

호의호식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들을 멸절하신다(8).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18:4)

(*)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바빌론 문화에서 나와야 한다(천주교, 이슬람, 불교, 타락한 개신교 등 종교 체제에서 나와야 한다.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라.

성전과 제사장 문화에서 탈출해야 한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바쁜 세상 속에서 정신 줄을 놓으면 안 된다. 바빌론에 빠지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 생각할

틈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 누가 무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로써 음녀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바빌론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의 최후(계14:9-11)

2019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최종 부르심을 기억하기 바란다. 나는 바빌론 문화에 빠져 정신 줄을 놓고

살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18:4).